

중문오일장 관광단지로 이전 ‘산 넘어 산’

시, 단지내 천제연공원으로 옮겨 오일장 활성화 계획
한국관광공사 ‘공원 무상양도’ 입장에도 속않아 여전
공원지구에 오일장 이전하려면 단지조성계획 변경해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천제연공원의 소유권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서귀포시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이하 관광공사)의 입장차가 관광공사의 ‘시에 무상양도’ 의견으로 문제가 풀리려는 듯했지만 또다른 난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천제연공원을 무상으로 넘겨받았 그 곳에 중문오일장을 이설할 계획이었지만, 공원지구를 시장으로 사용하려면 관광단지(유원지)를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관광공사 소유의 관광단지내 2만8900㎡의 천

제연공원에 대해 올해 1월 초 무상양도 의견을 문서로 보내왔다. 시의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익 목적의 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무상양도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조건부를 내세우긴 했지만 그동안 주장해온 ‘관광공사의 자산을 무상으로 시에 넘겨줄 수 없다’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천제연공원 부지를 무상 양도하겠다는 관광공사는 오는 12월 말 예정인 2단계 개발사업 부분준공 신청시점에서 현재 지적공부상 국공유지로 남아있는 용도 폐지된 옛 도로와

구거 등 106필지, 4만5800㎡의 소유권을 관광공사로 이전해주도록 시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고 시도 이의 수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관광공사가 내건 조건부 내용도 앞으로 두 기관의 협의과정을 통해 입장을 좁혀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시가 천제연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받더라도 침체된 중문오일장 관광단지를 천제연공원으로 이전해 활성화하려던 계획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공원지구인 유원지를 판매시설인 오일장으로 활용하려면 관광공사에서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해야 가능하다. 관광공사에서 공원부지의 무상양도를 결정하기까지도 내부입장 정리에 적잖은 시간이 걸렸는데, 또 무상으로 넘겨준 공원지구를 시가 원하는대로 판매시설로 선회 용도 변경에 나서

줄지도 알 수 없다.

침체된 중문오일장을 유동인구가 많은 중문단지로의 이설계획은 중문마을회의 건의사항으로 2016년 이설추진위원회가 꾸려졌고, 시는 2017년 시장 이설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진행했다. 또 중문오일장 이설과 관련해 2018년 중소기업벤처부의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2018~2019년)에도 선정돼 총 사업비 89억4200만원 중 지난해 확보한 29억원만 명시 이월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올해 초 천제연공원을 조건부로 시에 무상양도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조건부 내용도 두 기관이 협의하면서 풀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공원부지에 중문오일장을 이설하려면 관광공사측에서 유원지를 판매시설로 변경해줘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봄바람 휘날리면~ 왕벚꽃축제로”

오는 29-31일 전농로 등서
공연·체험 프로그램 풍성

올해로 제28회를 맞는 제주왕벚꽃축제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에일을 장전리와 삼도1동 전농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에앞서 개막 공식행사는 30일 오후 7시 장전리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제주시가 주최하는 이번 왕벚꽃축제는 각종 공연과 체험행사는 물론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된다.

장전리 행사장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왕벚꽃 감상을 위한 왕벚꽃 거리 야간 경관조명과 포토존 운영에 들어가며, 30일부터 공연·체험 프로그램 및 플라마켓과 먹거리 장터 등이 예정돼 있다.

삼도1동 전농로 일원에서는 오는 29일자 없는 거리로 운영하여 다양한 길거리 공연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왕벚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31일 오후 4시부터 삼도1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는 왕벚꽃 축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윤형기자



지난해 제주왕벚꽃축제 기간에 진행된 시민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한라일보DB

시 관계자는 “이번에 왕벚꽃 명소간 분산 개최되었던 축제기간을 개회시기에 맞춰 단일화한 만큼 효율적 축제 운영은 물론 관람객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주 고발

건축물 분양법 위반 혐의
부산 소재 A사, 설계 변경시
수분양자에 안내 미고지 등

서귀포시 중문동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상가 분양과 설계변경 절차상의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해당 건축물의 분양사업자(건축주)를 고발했다.

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소재 건축주 A사를 19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2016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지하 2층·지상 9층, 연면적 2만8572㎡, 588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올해 1월 30일 서귀포시로부터 적정면적이 미확보된 방화설비(배연창)를 추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사용승인을 받았고, 시는 2월 19일 조건부 사항 이행 완료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적정시

공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가 고발한 내용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서 근린생활시설(상가)은 공급내역표(호수·면적·분양금액)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실제 분양했음’과 ‘설계변경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전원동의의 대상 설계변경 이외의 변경 또는 변경을 하기 이전에 미리 수분양자 전원에게 안내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다.

이에 대해 해당 건축물 수분양자대변위원회는 “분양신고에 상가분양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설계변경 동의서를 받을 때도 설명도 해주지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며 동의서에 도장을 도용해 찍었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공고 내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시장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시는 시행사측에 책임을 덜 지우기 위해 형사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시장명령의 경우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된다. 문미숙기자

미분양 증가 속 주거용 건물 신축 감소

도내 건설경기 지속 둔화
작년 건축물 건립건수 급감
건축 심의도 전년비 31% ↓

제주지역 건설경기의 지속된 둔화와 미분양 증가세로 건축물 건립건수가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전체 건립비율에서 주거용 비중이 줄고 상업용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로 변화하

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국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제2차 제주도 건축기본계획’의 제주도 현황·여건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건축물 건립건수·면적은 2411건·72만7946㎡로 집계됐다. 이는 예년의 절반도 안되는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071건·157만2236㎡ ▷2014년 4655건·219

만3949㎡ ▷2015년 7871건·339만679㎡ ▷2016년 1만36건·388만8651㎡ ▷2017년 7263건·241만1597㎡ 등으로 조사됐다.

비율로 살펴보면 보면, 전체 건립건수 중 주거용 건립은 2015년 72%에서 2016년 80%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75%, 지난해 64%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상업용 비율은 2015년 18%

에서 2016년 13%로 떨어졌다가 2017년 14%, 지난해 18%로 상승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을 공급용으로 용도변경한 건수도 2015년 2건에서 2016년 10건, 2017년 1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건축계획 심의 동향을 보면, 2017년 기준 총 7163건으로, 전년 1만395건과 비교해 31.1% 줄어들었다.

미분양은 2015년 114건, 2016년 271건, 2017 1271건, 지난해 1295건으로 지속 늘어나고 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하는
우수자연환경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안내

▷ 신청기간: 2019년 3월 22 ~ 27일, 18시까지

▷ 교육기간: 2019년 4월~2019년 6월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총 6회

▷ 교육비: 무료(단, 점심식사와 본인부담)

▷ 모집인원: 20명(선착순)

▷ 소요시간: 09시~15시

▷ 신청방법: 참가신청서를 인터넷 다음카페 사단법인제주자연환경해설사협회에서 다운받아 이메일 seung6232@hanmail.net로 접수 하십시오

▷ 대상자발표: 2019년 4월 1일(월), 개인별 문자동보

- 참가 확정대상자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 신청문의: 사단법인 제주자연환경해설사협회 사무국 010-3693-9643

우수자연환경아카데미 일정표

월	일	요일	내 용	장 소
4	13	토	오름과 지질 트레일	대수산봉, 석산봉
~	27	토	제주 대표축제의 정, 마을의 연못	새별오름, 금산공원, 연화못
5	18	토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만장굴
~	25	토	생물권 보전지역, 에코힐링행사	사려니숲길, 물참오름
6	15	토	오름과 반딧불이 축제	저지오름, 청수곶자왈
~	29	토	오름과 꽃자왈	바농오름, 교래곶자왈

사단법인 제주자연환경해설사협회

친환경 전통건축
[한옥에서의 건강한 삶],

전통건축 선자연이 실현합니다.

시 공

- 전통건축(살림집, 사찰)

- 전통주택 시공 및 리모델링

- 전통 구들 시공

-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수리기술자] 직접 시공

- 전통건축 대목이 직접 시공참여 기술지도

- 나무, 흙, 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건축

- 제주 전통건축 양식 및 기구 반영한 설계 시공

- 품질 우선 시공, 합리적인 건축비

상담 : 010-5308-5796, 064-764-0488

전통한옥문화재사랑 선자연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와목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자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증축/리모델링/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단독주택 전채 리모델링/지붕개량/옥상방수/페인트공사/창문/도어문/대문 교체

불박이장/싱크대/신발장/도배/장판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010.7599.6234